

문화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예술감독 프리 라이젠

“광주서 작품 만들고 관객 만나고
아시아 넘어 세계로 연결시킬 것”



오는 2014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으로 벨기에 예술가 프리 라이젠(61·베를린 문화의 전당 수필라이트 오이로와 예술감독)이 선임됐다.

12일 광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프리 라이젠 감독은 “아시아 예술극장 사업은 놀랍고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프리 라이젠 감독은 지난해 아시아 예술극장 사업이었던 창작레지던시 국제 공모사업 심사에 참여하는 등 전당 사업과 인연을 맺어 왔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된 소감은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예술적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돼 영광이다. 지금까지 아시아의 작가들을 유럽에 소개하는 역할에 치중했다면 지금부터는 광주에서 작

품을 만들고, 그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 아시아권 예술가들을 만날 때마다 유럽에 관심은 많지만 정작 자기 나라 문화에는 관심이 적은 게 늘상 의아했다. 아시아권의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문화를 기반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의 문화와 배경을 정리·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의 유산을 현재와 연결시키고 미래를 기억하는 원천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예술극장이 세계 문화예술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예술극장에서 생성된 작업들은 카메라의 줌 기능처럼 처음에는 광주를 조명하지만 이어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도가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 지난 후 프랑스 파리의 어떤 예술가가 아시아에 관심이 있다면 그 예술가는 꼭 광주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말이다. 새로운 작품을 완성하려면 적어

도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술극장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6개월간 80여명의 후보들과 경합한 끝에 최종 예술감독으로 선정됐는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오랫동안 유럽에서 활동했지만 지속적으로 시야와 관점을 아시아 쪽까지 확장시켜왔다. 20여년전부터 아시아의 예술인과 예술흐름에 관심이 많았고, 아시아의 전통과 경제, 정치적 상황 등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 1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아트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나, 대규모 페스티벌을 창설하고 키운 경험들도 많이 평가되지 않았나 싶다. 특히 현재 누구나 떠올리는 유명한 작가들과 작업하기 보다는 항상 미래를 장악할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함께 작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온 점과 무용·시각예술·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온 점을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12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프리 라이젠 감독이 기자회견후 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상주 레지던스·프로덕션 운영 예술가 지원... 페스티벌 개최도

관객참여 적극 유도... 4월부터 한국인 스태프와 2014년 개관기념작 준비

-향후 아시아예술극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우선 이미 무대에서 선보였던 프로그램을 초대하는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에 상주하는 레지던스와 프로덕션을 운영해 전 세계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식들을 잘 결합시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또 커다란 맥락을 담은 페스티벌 개최도 구상중이다. 공연예술기획자로 아시아의 역사, 정치적 상황 등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한

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프로그램을 완성할 것이다. 광주 지역의 유능한 인재도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작자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향유자다. 아티스트들과의 작업 외에 일반 향유자들의 참여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

▲예술감독이라는 직업은 아주 작은 문장부호인 ‘·’과 같이 무엇인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

망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공연장까지 오는 수고를요을 마다하지 않는 관객들을 연결시켜 두 부류에게 모두 만족감을 얻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객들의 만족감과 충족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지 관객들에게 공연 타이틀만 제시하고 팸플릿 등으로 홍보하는 데서 머무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궁구할 것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0년간 300만부 판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출간 20여년 만에 300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출판사 창비는 1993년부터 순차적으로 출간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6권이 이달까지 모두 300만부 넘게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인문서 가운데 300만부 돌파 기록을 세운 것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처음이라고 창비는 설명했다. 저자는 “서양은 알 만큼 알면서 오히려 우리 것의 가치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집필을 시작했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답사기’를 열심히 써서 이 시리즈를 완결시키는 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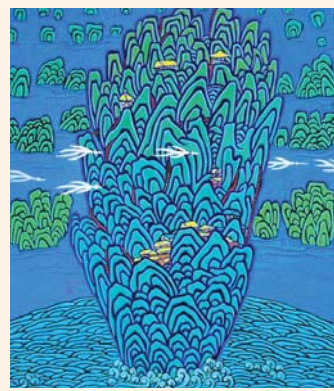
봄의 생명력을 느껴 보세요

이치호 초대전, 20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자연이 이렇게 화려할까. 광주 롯데갤러리는 이치호씨의 '봄을 부르는 풍경-Wave' 초대전을 20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풍경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해온 이씨의 개인전으로, 민화풍 화면을 구사하면서 울퉁감 있는 터치로 봄의 생명력을 발산하는 듯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밝은 원색에 윤율감이 가득한 터치로 화면 가득 생동감이 넘치는 'Homeland-Echo'를 비롯해 향토적인 남녘의 정취와 싱그러운 바다 내음을 느낄 수 있는 풍



'Island Dreams' 경화 등도 전시됐다. 문의 062-221-1809. /김지을기자 dok2000@

음악계 샛별들 등용문 열린다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 30~31일 금호아트홀서

제3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이 오는 30일, 31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과 유스퀘어문화관이 주최하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지난 2년간 총 29명의 연주자를 선발, 22회의 콘서트를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피아노, 현악, 관악 부문에서 선발했던 데서 나아가 올해 성악 부문을 추가했으며 오페라, 국악, 실내악 등 다양한 분야가 추가될 예정이다.

'금호주니어콘서트'는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 후 데뷔무대를 제공한다. 1986년 이후 출생자로서 60분 이상 독주가 가능한 음악도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8만 원이다.

한편 제1회 콘서트 시리즈 연주자 중 피아니스트 최현호(서울대 기악과)씨는 베를린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거버넌스 구축, 재단의 역할

광주문화재단·시의회, 내일 문화나눔 상상포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은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1회 문화나눔 상상포럼을 개최한다.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광주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문화정책 수립'에는 김보성 경남문화재단·충청남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명규(광주전남문화재단 대표) 등의 전문가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포럼에는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062-670-74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단 사무처장)씨 등이 토론을 벌인다.

2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에 따른 문화재단의 정책과제'에는 조선대 이승권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임동호(광주시의원), 강 원(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전문위원), 이명규(광주전남문화재단 대표) 등의 전문가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포럼에는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062-670-74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